

기습 한파에 대비, 전력수급 안정에 최선

- 절전 생활화를 위한 '전기모으기 아이디어 공모전' 추진 -

문의 |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(02-2110-4900)

- ▣ 영하 10도이하의 기습한파에 대비해 국민들의 절전 협조 당부
- ▣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하여 경제적 유인에 기초한 전력수요 관리와 함께, 상시적인 절전 생활화를 추진
- ▣ 절전문화 생활화를 위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함께 참여하는 절전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시
- ▣ 제품별 에너지 효율등급·에너지비용 정보를 제공하는 '효율바다' 사이트(www.효율바다.kr)를 개설

■ 지식경제부(장관 홍석우)는 금주에 예고된 기습 한파에 대응하여 국민들의 각별한 전기사용 절약을 당부하고, 앞으로 공급력 부족에 따른 전력위기 극복을 위하여 경제적 유인에 기초한 전력수급관리와 함께 절전문화 생활화를 상시 추진하겠다고 밝힘

◆ 동절기 전력수급 현황

■ 홍석우 장관은 지난해 12.15부터 실시중인 동계 전력수급대책에 따른 불편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덕분에 전력위기를 극복해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감사를 표시함

◎ 금번 동계 전력수급 기간 동안 국민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강추위, 원전 일시 중지 등에도 불구하고, 500만kW이상의 안정적인 예비력을 유지하고 있음

- 절전 규제효과가 본격 시현된 1월부터는 절전 규제만으로 원전 3기에 해당하는 300만kW 수준의 절감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
- 전력피크 시간이 11~12시에서 10시로 이동하고, 전력 부하 패턴이 시간대별로 고르게 분포하는 등 매우 안정적 모습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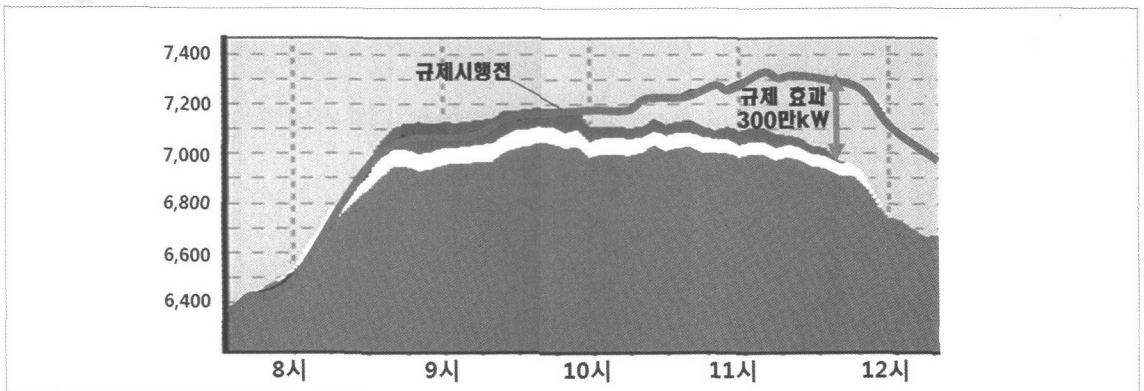
◎ 동절기 에너지 소비패턴도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전력과 가스의 판매량 증가폭이 전년 동기보다 크게 둔화되었을 뿐만 아니라, 내복판매량은 2배 이상 크게 증가하고 전열기 판매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
* 전력판매량 증가율 하락 : (' 10.12월) 7.3%→(' 11.12월) 1.0%, 가스판매량 증가율 하락 : (' 10.12월) 12.1%→(' 11.12월) 2.0%

* 내복판매량 증가 : (' 10.12.15-31) 413천벌→(' 11.12.15-31) 943천벌 전열기 판매량 감소 : (' 10.12월) 187,847→(' 11.12월) 171,355

■ 금주 중에는 최저 기온이 영하 12~13도에 이르는 기습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력수급이 다소 타이트할 것으로 전망

◎ 정부는 한전·발전자회사와 함께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여 전력 수급 안정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힘



◎ 국민들도 피크시간에 전기 사용을 자제하고 절전을 실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

◆ 상시적 절전체제 구축

- 2013년까지 예상되는 전력공급 부족에 의한 전력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산업현장 곳곳에서 절전이 실천되는 상시적 절전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
-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력의 과소비가 심각한 수준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해서는 절전 생활화가 무엇보다 중요
 - * 1인당 전력소비량(한국=100) : 일본 85, 영국 60, 프랑스 83, OECD 평균 87
 - * GDP대비 전력소비량(한국=100) : 일본 35 영국 36, 프랑스 59, OECD 평균 57
- 전력수요 피크가 발생하는 여름과 겨울철뿐만 아니라, 발전소 보수·정비를 위해서는 봄·가을철 전력수급관리도 중요함
- 상시적 에너지절약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하여 경제적 유인에 기초한 전력수급 관리와 함께, 에너지절약 문화 운동을 상시적으로 추진
- 안정적인 전력수급관리를 위해서 수요관리 협조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, 부하관리 요금제도 개선 및 민간 자가발전기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한편,
- 가정·경제계를 중심으로 절전 문화 운동을 전개하고, 절전 명품 발굴·생활밀착형 전기제품의 효율을 향상하는 등 에너지 저소비형 시스템 확산방안을 마련할 계획
- 여름철 전력수급관리 방안을 미리 꼼꼼히 준비해나가고 상시적인 절전 문화가 뿌리 내리도록 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것임

◆ 전기모으기 아이디어 공모전

- 상시적인 에너지절약 시스템 확립을 위한 절전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'전기모으기 아이디어 공모전'을 추진하게 됨
- 이번 공모전은 "절전 이야기 나누기", "절전 UCC가 쓴다", "절전 명품을 찾아서", "절전으로 경영하라" 등 4개 분야로 2.1일부터 3월말까지 추진됨
- '절전 이야기 나누기'는 주부·중장년층의 절전 노하우 및 경험을 라디오를 통해 공유하고, 초·중학생들의 절전 경험 수기·표어·포스터 공모를 통해 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
- '절전, UCC가 쓴다'의 경우, 고등학생부터 20~30대 젊은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, 절전을 주제로 한 영상 창작을 통해 일반인들의 절전 필요성 인식을 확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함
- '절전 명품을 찾아서'를 통해서 기발한 절전 아이디어 및 새로운 디자인이 활용된 절전 상품을 발굴함
 - 절전 명품으로 선정된 아이디어 상품은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상품화를 지원하고 TV 프로그램 홍보 등을 통해 판로 개척·보급을 지원할 예정임
- '절전으로 경영하라'를 통해서 피크시 절전 준수, 혁신적 절전 경영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우수 기업을 선발하고, 선발된 우수기업의 사례를 확산하여 기업들의 절전 경영을 유도할 예정
- '시민에게 길을 묻는다'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생활 속의 지혜를 발굴하고, 국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절전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

◆ 효율바다 사이트 개설

- 소비자들이 1만 5천개에 달하는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모델별 에너지 비용(예시: 연간 유류사용액, 월간 전기요금액 등)과 효율 등급을 비교할 수 있는 '효율바다 사이트(www.효율바다.kr)'를 개설함
- 가전제품은 모델별로 월간 전기요금을 계산해 볼 수 있고, 자동차의 경우 오피넷(www.opinet.co.kr, 유가정보 사이트)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연간 유류비 확인이 가능
- 에너지 효율정보를 민간에게 공개하여 민간 부문이 효율 정보를 가공·활용하여 여러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진
- 효율바다 사이트가 본격적으로 서비스에 들어가면 유사 제품간 에너지 비용과 효율 비교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어 효율이 높고 에너지 비용이 낮은 제품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함
- 효율바다는 출입기자단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정책화한 첫 케이스로서 언론과 정부가 국민 입장에서 머리를 맞댄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봄